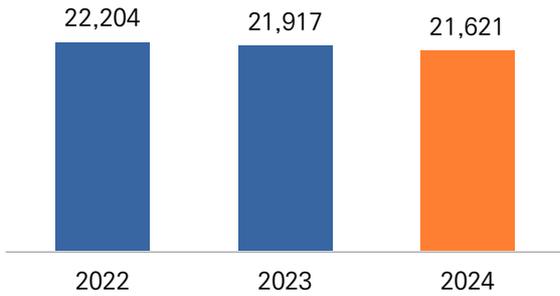




##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 장기 선교사, 2024년 기준 171개국에서 21,621명 사역중!

- 매년 2~3월이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한 한국선교현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올해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을 살펴본다.
- 2024년말 기준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아래 Note 참조)는 17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21,62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선교사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기 선교사 현황 연도별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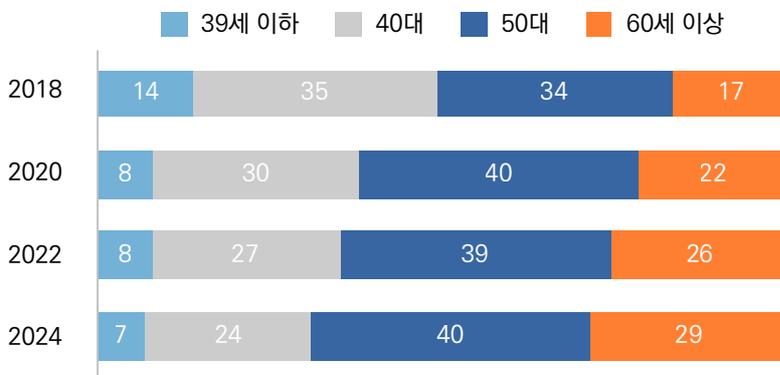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Note) 장기선교사의 정의 :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함.  
국내 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함.

## 지난 6년 사이, 50대 이상 선교사 51% → 69%!

-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29%, '40대' 24% 순의 분포를 보였다. '39세 이하' 젊은 선교사는 7%로 한 자리 수인 반면 '50세 이상'은 69%로 10명 중 7명 꼴로 나타나 젊은 선교사 수급이 크게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50대 이상 선교사 비중만 보면 2018년 51%에서 2024년 69%로 6년 사이 18%p 증가했다. 이는 선교사 연령의 고령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 (%)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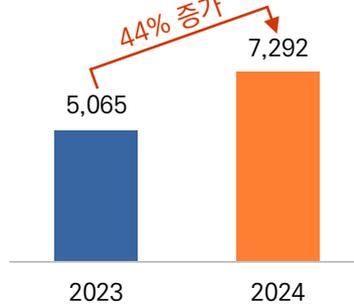
##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전년(2023년) 대비 44% 증가!

-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 참가자 수는 어떨까? 2023년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23년 760명에서 2024년은 1,046명으로 지난 1년 사이 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단기선교사\* 범주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선교 활동에 참여한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역시 2023년 5,065명에서 2024년 7,292명으로 전년 대비 44%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 (명)



[그림] 1년 미만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명)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Note) 단기 선교사의 정의 :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함.